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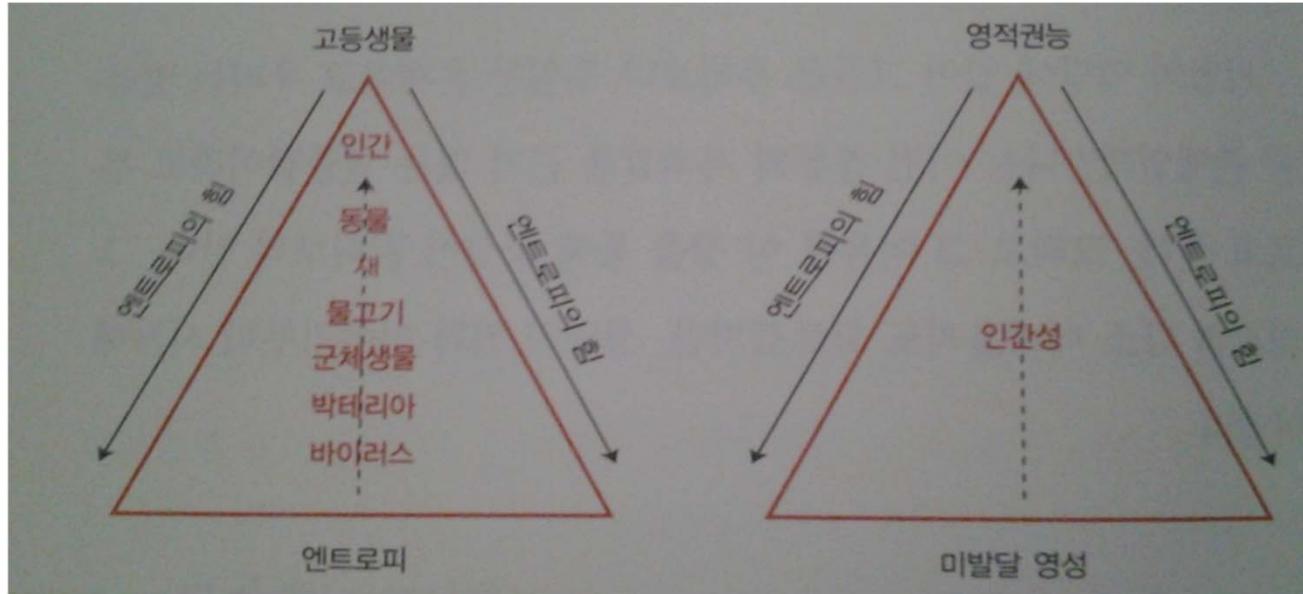
PART 3. 경영의 철학이다

3장. 기업의 진화와 진보

✓ 생명의 사다리

- 심리학자 스캇 펙(Scott Peck)의 저서 <아직도 가야 할 길>(The road less traveled)

: 생명의 진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해석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



- ✓ 진화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나 사다리가 아니라, 하나의 가지에서 수많은 가지가 무성하게 갈라져 나가는 나무와 같은 것
- ✓ 생명의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생명의 다양성이 증가되는 과정이다(스티븐 제이 굴드)

✓ 진화와 진보는 동일한 개념?

- "대체로 멍청한 (하등) 생물보다는 똑똑한 (고등) 생물들이 더 잘 생존해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."(천문학자 칼 세이건, Carl E. Sagan)

- "진화를 진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."(사회생물학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, Edward Wilson)

✓ 진화와 진보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오해

- 진보된 것처럼 보이는 종의 진화는 생명체가 더 이상 단순해질 수 없는 한계의 존재로 인해 종의 변이가 오로지 어느 한쪽으로만 열려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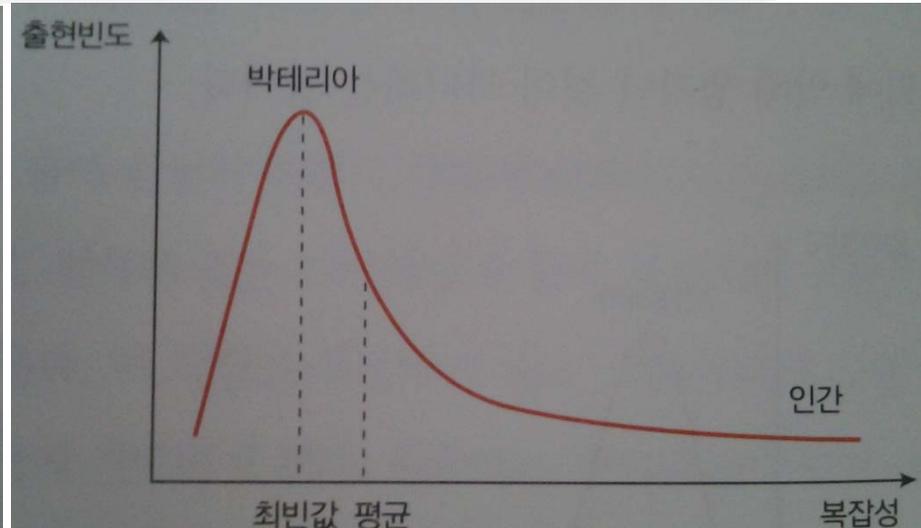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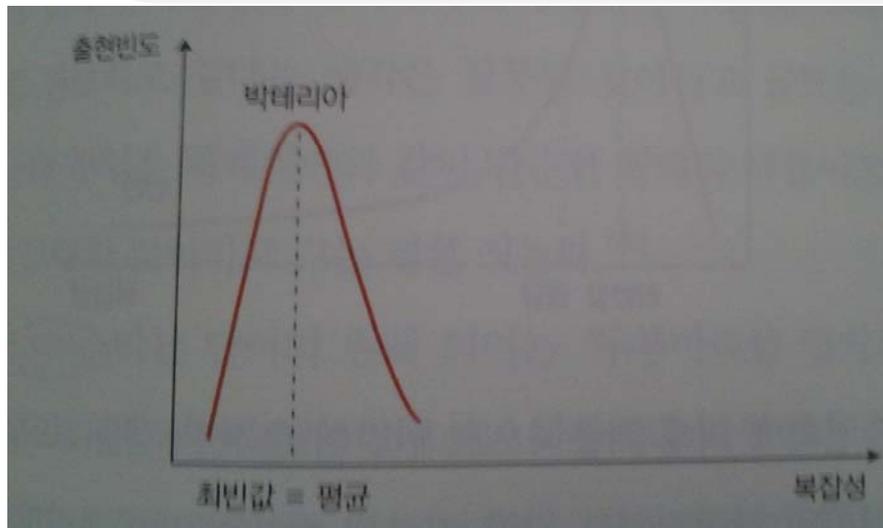
- 결코 진보하도록 예정된 경향이나 계획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

- 술 취한 주정뱅이는...

: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주정뱅이가 도랑으로 빠지는 사건은 변이가 축적되어 새로운 종이 출현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음. 그러나 도랑에 빠지게 된 사건이 극적인 새로운 종의 출현을 비유한다고 해도 도랑에 빠지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며, 주정뱅이는 그저 비틀거리다 우연히 도랑에 빠진 것에 불과함

✓ 진화와 진보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오해의 이유(BY 골드)

- 시스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의 변화에만 주목해 전체의 경향을 이끌어 내려는 잘못된 태도에 있음
-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, 지구는 복잡성의 최저한계(왼쪽 벽)에 거의 닿아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으며 변종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임
- 그러나 오랜 기간 변이가 지속되면서 술주정뱅이가 무작위로 비틀거리다가 어느 순간 도랑에 빠지는 것처럼 점점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음.
- 파충류, 포유류 등 복잡성을 띠는 생물이 발생하고 인류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태계의 분포도는 오른쪽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음



진화와 진보의 관계

✓ 진화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

- evolution: '두루마리를 펼치는 것', 다윈 이전의 생물학에서는 나방이나 딱정벌레 같은 곤충들의 변태(탈바꿈)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음
- 사실 찰스 다윈의 저작 어디에도 진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음, 진화를 진보의 의미로 오해하게 만든 장본인은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(Herbert Spencer)
- 스펜서는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 '사회다윈주의'(Social Darwinism)의 정치이념을 창안해 훗날 인종주의와 우생학이 정당화되도록 하였음
- 그는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적자생존이라는 자연법칙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는데, 그 이유는 발전과 진보를 위해 약자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을 사회의 진화라고 보았기 때문임
- 우리가 진화를 진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스펜서의 사회다윈주의가 한 몫을 하고 있음

✓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. 진화는 다양성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.

✓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진화는 진보인가, 그렇지 않은가?

✓ 개별 기업의 진보

- 혁신과 성장을 통해 매출을 키우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분명 과거보다 더 나은 상태이며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음
- 그러나 '기업 생태계'로 눈을 돌려보면, 기업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다양성 측면에서 확장되고 있음
 - : 박테리아로만 이루어져 있던 생태계에서 인간과 같은 자칭 '만물의 영장'이 분화되어 나왔듯이, 가내수공업에서 대량생산체제로,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, 전통적인 서비스업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으로 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.
- 이러한 기업의 진화가 과연 진보의 결과인가?

✓ 개별 기업의 진화는 다양성의 증가

- 이러한 기업의 진화가 과연 진보의 결과인가?
- 굴드의 주장과 유사하게 기업의 진화는 진보라기 보다는 오른쪽 꼬리가 길어진 '변이의 확대'이자, 다시 말해 다양성의 증가로 봐야 함
- GE나 삼성전자처럼 고도로 복잡하고 거대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1인 기업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기업이 그보다 훨씬 많은 수로 기업 생태계에서 활동하고 있음

기업의 진화는 진보가 아닌 다양성의 증가

✓ 그래도 기업은 진보하고 있다?

- 지적 열망이 결과로 과학과 기술이 진보한 것과 마찬가지로,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가 동력이 되어 기업이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보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음

- 그러나 인류의 문화가 어떤 지향점을 향해 폭발적인 속도로 진보한다는 골드의 견해는 인정하기 어려움

: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보다 지금의 문화가 인류를 더 진보시킨 것인가?

한국전, 베트남전, 걸프전, 이라크 전쟁 등은 인류의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?

: 미개한 호모에렉투스가 노획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인육을 먹기 위해 상대방을 돌도끼로 죽이는 것과 마루타에게 생체실험을 잔인하게 실시하면서도 인류의 의학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믿는 신념 중에 무엇이 더 진보적인가?

: 1940년대의 히틀러의 광기는 유대인 말살이라는 진보하지 않은 인류의 상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, 1990년대 보스니아 대학살을 저지른 밀로셰비치 대통령과 같은 인물도 진보의 산물인가?

: 칼과 창으로 싸우던 옛날과 원자폭탄이 즐비한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진보된 것인가?

☞ **결국 인류 문화의 진화는 변이의 진행이자 다양성의 확대일 뿐, 진보라고 할 수는 없다.**

생명의 진화와 기업의 진화는 본질이 다른가?

✓ ROI가 높은 것들

기업	매출	비용(투자액)	이익	ROI
가내수공업	2	1	1	1.0
삼성전자	2000	500	1500	3.0

- (예.) 두 종의 동물들
- 하나는 키가 1m, 다른 하나는 키가 2m
- 각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키 차이의 2배처럼 2배 차이가 아닌 부피는 세제곱(면적은 제곱)이므로 8배 차이가 생긴
- 삼성전자가 투자한 500의 비용보다 더 큰 금액이 뒤에 숨어있다고 해석 가능함
즉, 인건비, 재료비, 연구개발비 등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비용만 감안된 것이고 내부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금전적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임
- 대표적인 숨은 비용은 직원들이 추가한 노동에너지와 축적되는 스트레스

✓ CRM(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)

- 고객의 입맛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음
- 그러나 시스템은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!!! 고객 관련 데이터의 입력, 갱신 등 지속적인 관리, 시스템 관련 각종 지침과 프로세스를 반드시 준수
- 예외도 있을 수 있으나, 시스템 확충과 고도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, 오히려 시스템 관리 때문에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등 '보이지 않는 비용'이 늘어나게 됨

✓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진보된 것인가?

- 단순히 장부정리만 잘하면 되는 단순한 기업환경이라면 덩치 큰 ERP 시스템은 필요치 않음
- 결국 환경이 ERP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것이며, 각종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위한 비용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'사회적 비용'
- 예외도 있을 수 있으나, 시스템 확충과 고도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, 오히려 시스템 관리 때문에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등 '보이지 않는 비용'이 늘어나게 됨

기업의 진화는 진보가 아니며 진보의 여부는 결코 환경과 분리시켜 논할 수 없음